

2025 경기예술지원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심의평

2025년 경기예술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는 총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1개 단체를 제외하고 2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15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 및 공연장에 대한 심의 평과 심의 전체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수 평가를 받은 단체는 연속사업으로 상주단체 사업을 추진해 가는 단체입니다. 단계적으로 단체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창작 작업과 관객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상주 공연장과 지역 관객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단체와 공연장 사이의 상호성을 높여나가는 기획이 창작 작업의 동기로 환류되고 있고, 향후 단계로 제시된 활동들이 구체적이었기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극 분야는 단체와 공연장·지역의 협업 과정 및 발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단체들이 충실도 높은 프로그램 구성을 제출하여 우선 선정 단체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년도 평가가 매우 우수한 단체들을 우선 선정한 후,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신규 단체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동일 공연장에서 두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준비 정도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연극 분야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은 단체가 연습실이나 극장 등 안정적인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제작 초연을 통해 관객을 만나 작품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재공연을 통해 발전된 좋은 작업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중심의 연극 제작 환경에서 이 사업은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관객 개발도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 연극의 저변 확대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분야는 단체가 공연장을 거점으로 한 상주성의 이점과 영향을 단체의 정체성과 결부시켜 고안하고 있는지, 단체로서의 경쟁력과 수월성을 해당 사업에서 펼치고 개발해 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공연장과 협력하여 지역 관객과의 관계를 개발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지를 중심에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이나 단체 자체로 역량이 인정되는 단체들이 지원하여 몇 개의 단체만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기획한 개별 공연을 넘어 상주 공연장과 지역 협력공연장과의 협력하에 중장기적으로 음악가들의 지역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자 하는 비전과 계획에서 양측의 준비도가 높은 단체를 선발하였습니다.

무용 분야는 통상적으로 타 장르에 비해 지역과 극장에서의 선호도가 낮은 장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 상주하는 무용 단체가 지역 극장과의 협력이 가능할 때 극장 프로그램의 장르 확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창작무용은 동시대 작업으로서 지역 관객들에게 새로운 예술형식을 체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는 지역 커뮤니티사업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무용 예술교육을 설계함으로써 장르 이해도를 높이며 이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선정 단체들은 공연 규모나 그동안의 활동 경력에서

그 우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극장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을 연구하면서 관객개발과 공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극장 프로그램 다수가 여전히 전형적인 관객 맞춤형의 공연 배분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지역 극장이 무용 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하고 동시대적인 작품이 프로그래밍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지역의 예술자원과 연계한 공연장 측의 요구가 큰 편이며, 점진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 관객을 의식한 지역의 요구도 상당수 반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최근 미디어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는 전통예술의 최신 경향도 전통 단체들에게 활력을 부여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역동성을 지닌 전통예술의 특성상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상당수 제안하고 있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역·공연장의 요구와 별개로 단체의 예술적 미션과 창작 역량 개발 측면에서 이런 환경이 도리어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단체와의 대화도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연장·지역 상주단체로서 부과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시켜 갈 구체적인 계획과 단체의 예술적 미션을 균형감 있게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상주단체의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였고, 신규단체의 경우 지역과 장르를 안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단체와 공연장·지역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이 사업의 주요한 동력임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인터뷰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대화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으로 경기지역 예술 생태계가 더욱 활력 있게 변화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3.6.

심의위원

이양구 (작·연출가, 극단 해인 대표)
박하나 (프리랜서 공연기획자)
안애순 (안무가)
서지혜 (인컬처컨설팅 대표)
우 연 (독립기획자)